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12. 12.(금) 15:00
(지 면) 2025. 12. 13.(토) 조간

고층건축물 화재 걱정 없도록, 정부가 미리 꼼꼼하게 점검한다

-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, 부산국제금융센터 화재 안전관리 실태 점검
- 정부,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대상 화재안전점검 실시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12일(금)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부산국제금융센터*를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.

* 지상 63층/지하 4층,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8개 기관 입주(상주인원 3,400여 명)

○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(11.26.)를 계기로, 정부가 추진 중인 ‘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’(12.3.)의 일환으로 마련됐다.

□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화재 안전대책을 보고받고, 주요 소방·피난시설과 함께 119상황실과의 상황공유 체계 등 부산국제금융센터의 화재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했다.

○ 특히,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을 돌며, 거주자 피난 대책과 구급 등을 위해 비치된 장비를 면밀히 살폈다.

○ 지하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압용 소화장치를 확인하고, 작동 원리와 실제 화재 상황에서의 작동성과 진화 효과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었다.

□ 한편,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.

○ 소방청은 초고층건축물(50층 이상) 140개소 전부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준초고층(30~49층) 83개소를 우선 긴급점검(~12.12.)하고, 이 외 고층건축물 6,28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6월 말까지 진행한다.

- 고용노동부는 고층건축물 시공 현장 3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(12.15.~19.)하고, 내년 1월에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.
- 행정안전부는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고층건축물과 공사 중인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실시(12.8.~12.19.)한다.
-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고층건축물 화재 특성상 수직 확산이 빠르고 외부 소방활동에도 제약이 있어, 철저한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며,
 - “정부는 국민께서 고층건축물 화재에 불안하지 않도록, 고층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사회재난실 국토산업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조정원 (044-205-6330)
		담당자	사무관	조호명 (044-205-6336)

